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선조의 광기·섹시함 보여줄 것”

KBS ‘왕의 얼굴’ 이성재... “광해와 관계 설정 어려워”

“군주의 상이 아닌 자가 임금에 되면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큰 환란을 겪게 된다.”(관상사 ‘용안비서’ 중)
오는 19일 방송되는 KBS 2TV 사극 ‘왕의 얼굴’은 역경을 딛고 조선시대 제15대 왕이 되는 광해의 성장기다. 한편으로는 왕의 얼굴을 갖지 못했다는 콤플렉스에 평생 시달리면서 아들 광해를 질시했던 선조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선조 역을 맡은 배우 이성재(44·사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머리는 복잡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웃었다.
“왕의 얼굴” 작가가 선조에게는 3가지 면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더라고요. 왕의 얼굴을 갖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로 말미암은 광기가 그 첫번째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영리함이 두번째요. 세번째는 저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섹시함이에요. 하하하. 내적으로 섹시한 선조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성재가 전한 것처럼 선조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그는 관상 가로부터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얼굴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보위에 올랐다. 권력을 휘어잡고자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누군가 용상을 차지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증에도 고통받는다.
임진왜란 때 명으로 몸을 피하려던 죄책감은 성공적으로 난리를 수습한 아들 광해에 대한 라이벌 의식으로 재생산된다. 연기 베테랑인 이성재도 부자간인 선조와 광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선조가 아무리 광해에게 화내고 노여움을 표현해도 일단 광해가 친아들인 만큼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광해를 완전히 나쁜 악으로 대할 수도 없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하기에 어렵네요.”
이성재는 광해로 분한 서인국(27)에 대해 “다른 가수 출신 배우도 많지만 가수보다는 배우의 느낌이 강하다”면서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옆에 앉은 서인국은 “첫 사극이라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했는데 이성재 선배가 아버지마더서 많은 힘이 된다”면서 “힘든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이 선배가 호흡을 맞춰주기 위해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는데 카메라 뒤에서 열연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성재는 극 중 반역을 꾸미는 김도처로 등장하는 신성록(32)에 대해서는 “관상을 보는 분이 저랑 신성록 씨를 보더니 ‘옛 같은 사이’라고 했다.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즉 부부로 태어나면 절대 이혼할 수 없는 사이”라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인문학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such as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생생한 이야기,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강좌, 전철한 수학 익힘책,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인터스텔라’ 돌풍

개봉 10여일만에 500만 돌파... ‘겨울왕국’ 보다 5일 빠른 기록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지난 6일 개봉한 ‘인터스텔라’는 개봉 열흘 만에 483만 관객을 돌파했다. 11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6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이후 ‘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군도: 민란의 시대’ 등 한국영화에 크게 밀렸던 외화로서는 모처럼 기지개를 켜 셈이다.
◆놀란의 놀라운 흥행세=개봉 첫날 22만명의 관객을 모은 ‘인터스텔라’는 개봉 3일째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첫 주말에만 190만명을 끌어모은 이 영화는 8일째에 300만명을 넘었다. 평일 30만명 안팎의 관객이 들었던 점에 비해 12일째인 17일 50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올해 최고 히트 외화 ‘겨울왕국’의 500만 돌파 속도보다 5일 빠른 기록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개봉 첫날 67.6%를 기록한 ‘인터스텔라’는 5일째 78.5%의 점유율을, 7일째에는 79.4%로 최고 점유율을 찍었다.
◆꾸준히 파고들어가는 놀란식 드라마=‘매넌토’(2000) 등 예술영화를 제외하고, 놀란 감독이 연출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국내에 소개된 건 2005년 ‘배트맨 비긴즈’부터다. ‘배트맨 비긴즈’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지만 92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100만 관객에도 미치지 못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치고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2008년 개봉한 ‘다크 나이트’부터 놀란의 영화는 국내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주인공 공 배트맨보다도 약당 ‘조커’에 방점을 둔 ‘다크 나이트’는 408만명을 모으며 그해 외화 순위 3위에 올랐다. 2010년 개봉한 ‘인셉션’은 놀란의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람의 뇌로 들어가 생각을 훑는다든가 기발한 착상에 기반을 둔 이 영화는 592만명을 끌어모았다.
배트맨 시리즈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는 ‘전복’이라는 혁명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인 블록버스터



였음에도 639만명을 동원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첨단 과학 속에 내재한 ‘가족’이라는 보편성=놀란 감독은 그동안 과학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꽤 많이 만들었다. ‘매넌토’에서는 단기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했던 그는 ‘인셉션’에서는 인간의 무의식과 뇌 활동에 집중했다. 꿈을 꾸는 동안 경계가 허술해진 타인의 무의식에 침입해 생각을 훑치는 추출, 무의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린보를 비롯해 핵, 토탑 등 어려운 용어들이 영화에 산재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인식의 틀을 인간의 무의식에서 우주로 확장했다. 상대성이론과 웜홀 등 어려운 용어들이 어지지만 ‘인셉션’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이해하고 감정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영화 초중반에 ‘상대성이론’이나 ‘웜홀’ 등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졌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나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화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스티븐호킹의 따뜻한 가족에 대한 점에서 기존 놀란의 영화들보다 훨씬 보편적이라는 평가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주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모킹제이’를 제외하고, 당분간 큰 영화가 없어 700~800만 관객을 무난히 동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음 윤9월 26일) 癸巳

36년생 복을 불러들이는 전조가 보인다. 48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년생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72년생 결정하라. 84년생 큰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행운의 숫자 : 56, 11
37년생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이다. 49년생 실속 있는 것이 유익하다. 61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73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었다. 85년생 소모적인 국면은 피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65
38년생 기초부터 재검토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50년생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방자하리라. 62년생 오늘의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로 상징된다. 74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4, 76
39년생 기초는 유시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51년생 지연 되어 왔던 일의 물꼬가 트이리라. 63년생 유념하여야 뒤떨어 없느니라. 75년생 기회는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니 잘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77, 04
40년생 힘든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지겠다. 52년생 의심스럽다면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64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76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23, 75
41년생 자신이 변해야 국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3년생 투명해야만 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65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다. 77년생 아무리 굴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24

42년생 기쁨이 서투르다면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으리라. 54년생 명분은 이롭더라도 실속이 없이는 법이다. 66년생 잔란한 영감이 따르리라. 78년생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3, 33
43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 것이 잘 맞아 떨어질 수다. 55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67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알라. 79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신경 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44
44년생 범위의 구획에 따라 천차만별 하리라. 56년생 수정을 가하게 되는 변수가 보인다. 68년생 김도처와 달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느니라. 80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53
45년생 정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년생 노력에 대한 알찬 성과가 따르다. 69년생 충동적이라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81년생 근원이 확실하다면 파생되는 것도 실용적이다.
행운의 숫자 : 10, 87
46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58년생 어떠한 형국이 되더라도 일관되게 대처라. 70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 도 있다. 82년생 서두를수록 우위를 점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2, 18
47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59년생 어떤까지 감안해야 안전한 것이다. 71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83년생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64,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